

15대 임원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장 박성근(전 본 협 부회장 역임)

지난 2006년 1월 20일은 한국양봉협회 제 33차 정기총회와 제 15대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 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맡아 활동기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기간동안 후보 예정자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위하여 선거에 참한 회원들의 열정과 집념은 참으로 대단하였고 역대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과열된 현상이었습니다.

회장 후보자를 정점으로 마치 동인서인으로 나누어져 라인이 분명했고 인신공격성 발언, 상대 후보 흠집 내기 등등.....

타락과 혼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와 후유증이 크겠다는 예견을 하면서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함께 후보자들을 독려해가며 무사히 선거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월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도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선관위에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하여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모든 후보자들의 소신과 정책 그리고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 선거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측 하면서 후보자들에게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논의 해 왔었습니다.

한국양봉협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토론회, 선거 공보 발송 등..... 분명 양봉 업계도 새로운 선거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론회는 민주주의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토론회를 하는 목적은 회원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후보자들의 비전은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말들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업계의 동남으로 회장으로 바람 직 한가 비교우위를 검증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후보요건은 첫째, 도덕성. 둘째, 봉사정신, 셋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법!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으로 포용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 입니다.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크고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겠지만 과연 어느 길이 업계를 위한 길인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협회도 이번 제15대 임원선거를 계기로 삼아 한 단계 성숙된 선거문화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선거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후보자와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에게도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선거로 후유증이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회원여러분! 그 어느 때 보다 대 화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